

운명소비행동의 선행요인

김 철 민[†]

광주대학교 언론광고학부

이 성 수

(주)하쿠호도제일 브랜드 디자인 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행동(본 논문에서는 운명소비행동이라 명명함)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하위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첫째, 운명소비행동의 이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신념인 운명관(정명관, 역명관, 조명관, 유전결정관)의 요인구조가 안정적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운명관의 네 가지 하위 요인구조는 내적 일관성과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연구를 통해 운명소비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된 각 변인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역명관과 유전결정관은 운명소비의도의 주요 결정요인이었다. 역명관과 정명관은 이용경험, 예측정확도 및 인생의 성패경험이라는 선행 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조명관은 자기효능감과 확실성 선호라는 개인차의 성격 변인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유전결정관은 어떠한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 받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운명관, 운명소비행동, 운명론

[†] 교신저자 : 김철민, kimcm@hosim.kwangju.ac.kr

인간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한다. 결혼을 하고자 할 때 배우자간 궁합을 살펴본다. 아이를 낳을 때 연월일시를 살펴보고, 출생 후에는 그에 따라 이름을 짓는다. 길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사를 하거나 예식장을 잡기 어렵다. 죽는 날을 잡지는 않지만 아직도 여전히 명당에 묻히길 바라는 사람은 많다. 매년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을 보거나 사주나 점복집을 찾는 이가 많다. 2002년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7.3%가 역학이나 점복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알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김철민, 2002). 2004년 모 방송국의 신년 프로그램에서 조사는 한국인의 72%가 역학이나 점복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알아본 경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지표로 역시 점복 서비스 제공자 단체인 경신연합회 등록회원은 공식회원이 10만이며, 연합회 측은 2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Win, 1997년 7월호). 2002년말 한국의 700 역학 서비스는 450여개이며, 현재는 인터넷 각 사이트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한국인은 왜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행동(본 논문에서는 운명소비행동이라 할 것임)을 하는가? 현재 이 순간에 미래를 안다는 것은 결정된 미래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미래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자신의 노력을 통해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고가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사고인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의 운명소비행동은 비과학적이며 미신 추구행동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도구들(점복, 역학, 관상, 수상 등)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불신과 그 원리의 비과학성은 운명소비행동을 사회과학의 탐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첨단 과학문명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을 통해 계층간 이동이 역동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역동적인 사회구조에서 빈부와 귀천은 모두 개인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개인의 미래는 자신의 노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돌발적인 사고나 행운이 모두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듯 하다. 진정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기복행동이나 운명소비행동 현상이 이 사실을 반증한다. 또 논리적 비약일 수 있지만 인간은 생로병사한다. 세상에 난 것은 늙고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뇌 속의 특정한 유전자는 감정 전달 화학물질(노노아민 산화효소 : MAOA)을 만드는데, 이 효소의 수치가 낮을 경우 감정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반사회적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중앙일보, 2002). 또 도파민은 정신병, 아드레날린은 공격성이나 공격 행동과 관련이 있다(Carlson, 1986, p.68-72). 이러한 결과는 유전적 소인이나 특정 신경전달 물질의 수치에 의해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심리학에서 수많은 개인차 변수(변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적 구성개념들: 성격, 지능 등)들에 대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가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 그 가정은 결정론과 가깝다. 개인차 변수를 개인의 미래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 가정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운명소비행동에 내재한 가정이나 열망과 비슷하다. 물론 심리학에서 개인차 변수는 개인의 행동을 이해, 설명하거나 예측,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예측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능이나 성격을 조작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아야 한다(일정 기간 동안의 안정성을 제외한다면). 즉 자의나 타의에 의한 노력을 통해 개인차 변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명 소비행동도 마찬가지이다. 운명 소비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인위적 노력(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믿음도 필요하다. 만약 개인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변화 불가능하다면, 운명소비행동을 통해 운명을 아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해진 운명이 긍정적이라면 더 긍정적으로 다가오게 하고 부정적이라면 피하거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명소비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운명에 대한 믿음들만으로 운명소비행동을 모두 설명하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만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은 운명소비행동의 필요조건일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정재민, 1998). 더욱이 이러한 운명에 대한 믿음은 가치관이나 핵심적 신념처럼 심층적 기저에 존재하기 때문에 표층에 있는 일상의 운명소비행동에 모두 반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김철민, 1996; Ajzen, 1987). 또 바뀔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거나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고 믿어도 운명소비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운명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심리적 기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행동 즉 운명소비행동의 이유를 심리적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운명소비행동의 설명변수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본 연구는 선행 연구(김철민, 2002)의 후속편이다. 즉 선행

연구에서 밝힌 운명 소비행동에 내재한 운명에 대한 신념(운명관: 정명관, 역명관, 조명관, 유전결정관)의 요인 구조에 대한 타당화 연구이기도 하다.

선행 연구와 연구 문제

운명소비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 운명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즉 운명소비행동의 이면에 있는 운명에 대한 기본 가정을 알아야 한다. 김철민(2002)은 현재 한국인의 운명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과거 한국의 여러 문헌들(유교와 불교, 목가의 고전, 조선조 유학서 등)을 고찰하고 한국인의 운명관을 크게 세 가지로 상정하였다. 첫째는 인간의 운명은 탄생의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정명관이다. 두 번째는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인위적 노력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역명관이고, 세 번째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 간다는 조명관이다.

이러한 이론적 개념 정의에 바탕하여 문항들을 구성하고 조사 연구를 통해 운명관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네 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제 1요인으로는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인 易命觀이었고, 제 2요인은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造命觀이었으며, 제 3요인은 유전적 소인에 의한 유전결정관이었고, 제 4요인으로는 운명은 정해져 있어 바뀔 수 없다는 定命觀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묶였다. 이 결과를 통해 탐색적이거나 한국인의 운명관의 구조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김철민(2002)의 연구는 운명관의 요인 구조에 대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연역적, 이론적으로 상정하지 않은 유전 결정관이라 명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유전결정관은 의미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결정된다(지능, 키, 외모 등)는 믿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정명관과 가깝고, 후천적, 인위적 노력에 의해 다소 변화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역명관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요인으로 묶었다(더욱이 문항간 내적 합치도 지수도 낮았다, $\alpha=.510$). 이 요인이 운명관의 한 차원을 구성하는 믿음인지를 다른 조사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역명관과 조명관에 묶인 일부 문항들 간 의미상 중첩이다. 특히 타고난 팔자도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 정해진 운명도 바뀔 수 있다, 궁합이 안 좋아도 서로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와 같은 문항들은 개념적으로 전형적인 역명관에 해당하는 문항들이다. 이 결과가 명확하다면 운명 주재자에게 기복행동을 통해 운명을 바꾸는 역명과 이와 무관하게 순수한 노력을 통해 역명 가능하다는 믿음은 다르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문제 1 : 운명 소비행동의 설명 변수인 운명관의 구조는 안정적인가?

이러한 운명관은 개인의 운명 소비행동에 유의미한 설명량(전체: 30%, 역명관: 27%)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개인의 운명에 대한 기본 가정들만으로 운명소비행동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운명소비행동에 내재한 운명관은 연역적, 논리적 추론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심리적 구성개념이다. 운명관은 항상 개인의 의식 표면에 떠올라 개인의 일상 사고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의식의 심층에 존재하는 일종의 무의식처럼 작용하는

구성개념이다.

따라서 좀 더 직접적으로 개인을 운명소비행동으로 이끄는 또 다른 심리적 기제나 변수들을 규명해보아야 한다.

운명관을 제외한 운명소비행동의 설명변수들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소박한 의문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왜 운명 소비행동을 하는가? 왜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가? 최초에 운명 서비스 제공자를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왜 반복적으로 찾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과거 국내에서 이루어진 운명소비행동과 관련한 문헌들을 고찰해 보았다. 지금까지 국내의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운명소비행동과 관련하여 출판된 문헌들은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지만 학술적 접근을 취한 연구물들만을 살펴보았다.

먼저, 무속이나 점복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이 있다(서영대, 1994; 김태곤 외, 1995; 김홍철, 1995; 오수성, 1995 등).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민속지학적(ethnographic)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주로 점복의 역사와 현황, 점복의 전문화, 상업화,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점복자들을 다루고 있으며, 문화적,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점복의 성행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 점복의 존재 이유(또는 한국인이 점복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연구들은 주로 거시적 관점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의 점복 이용 이유나 동기에 대한 조사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최길성, 1990; 김태곤 외, 1995; 강정환, 1998). 이 연구들에 언급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점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재물(사업이나 직장 문제)이었고, 두 번째는 이성/결혼 문제였다. 그 외에는 시험, 이사, 질병, 물건의 분실, 매매, 소

송 등이었다.

사주나 주역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은 주로 주역의 원리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나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즉 동양 철학의 흐름 속에서 주역의 위상을 파악하거나 주역을 내용 해석, 원리 이해에 관련한 연구들이다(한국동양철학회, 1996; 이기동, 1997; 박재주, 2001 등 참조). 주역 사상을 현대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현상학, 기호학, 사회심리학적 관점과 주역을 대비하여 주역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김용정, 1992; 이은봉, 1992; 김경동, 1994; 김석진, 1995; 이정복, 1996; 강정한, 1998).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주역 원리에 내포한 신비성, 초합리성을 주역 자체의 논리를 통해 극복하거나 널리 수용된 거대 이론과 주역을 대비하여 보편타당성을 입증하려 하였다.

한편 개인의 운명을 알아내는 방법(사주)의 객관성(신뢰성과 타당성)을 경험 연구를 통해 입증하려는 연구들도 있다(신상춘, 1991; 양문승, 2003). 사주학을 이용하여 뽑아낸 개인의 운명과 성격, 범죄 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도구로서 사주학의 타당성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개인의 운명을 도출한 사주학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논리 전개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쉽게 수용하긴 어렵다.

이상의 연구들은 철학적, 문화적, 민속지학적, 사회 제도적 관점에서 운명소비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현상론적 입장에서 운명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운명소비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개인이 운명 소비행동을 왜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명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 개인의 측면에서 개인을 운명 소

비행동으로 이끄는 또 다른 심리적 기제나 변수들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 운명 소비행동의 또 다른 설명 변수들은 무엇인가?

예비 연구

문헌 고찰을 통해서도 한국인의 운명소비행동에 대한 이유나 설명 변수들에 대한 단초를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연구로서 운명 소비행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group 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그 대상자로는 운명 소비경험이 있는 남, 여 대학생 한 집단(8명), 30대 이상의 기혼 남자 집단(5명), 기혼 여자 집단(5명)이었다. 면접 방법은 반 구조화(semi-structured) 면접이었다. 즉 심층토의 진행 방향에 관한 문항들을 미리 작성하고 문항별로 집단 토의와 개별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내용은 녹취하고 문서화하여 분석하였고, 면접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였다.

집단 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운명 서비스 제공자를 처음 접한 곳: 최초 시작은 대부분 대중 매체(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대학생), 700서비스, 주변에 있는 사람(비전문가)을 통한 경우가 많았다. 또 친구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소개하여 직접 운명 서비스 제공자를 찾는 경우도 있었고, 부모나 친지를 통한 간접 소비를 통해서도 있었다.

첫 운명 소비 행동을 한 심리적 계기: 처음에는 우연히, 호기심이나 재미삼아서가 가장 많았

다. 처한 현실이 답답해서였다.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거나 엄청난 시련에 부딪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고 느꼈거나 시험과 같이 어떤 일을 한 후 막연히 기다리기 답답하고, 결과가 매우 궁금했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번 이상 이용하는 이유: 재미와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잘 맞추어서, 부모님에게 전달받은 운명 메시지가 잘 맞아서가 대부분 이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꼭 운명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담하고 시작해야 안심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주변인들은 왜 운명 소비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 잘 맞춰서(예측의 정확성) 신기하고 신비로운 경험 때문,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기 때문, 특히 어머니의 입장에서 남편이나 자녀에게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명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처행동(기도, 소원행동, 부적 등)을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운명 소비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조급한 사람(일의 결말이 궁금해서 못 참는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 운명 소비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운명소비행동 후 심리적 결과와 대처 행동: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운명 소비행동 후 생각/느낌과 대처 행동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긍정적인 미래인 경우, 대부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행복감을 느낀다, 겸허하고 삼가는 마음자세를 갖는다, 사회적 기부행동을 하기도 하고 복권을 사기도 한다는 응답이었다. 부정적인 미래인 경우에는 결과를 불신하거나

애써 무시/회피한다는 반응이 많았고, 꼭 대처행동(부적, 기도나 불공같은 기복행동, 심지어는 굿 등)으로 이어진다고 응답하였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공통적인 대처행동은 ‘삼간다’는 반응이 많았다. 긍정적인 경우는 복이 달아날까 염려되어 삼가고, 부정인 경우는 액운이나 불운을 피하기 위해 삼가는 행동을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운명 소비행동에 대한 몇 가지 설명 변수를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역시 기존 소비 경험이다. 과거의 행동(습관)이 현재와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과거의 행동은 그 결과가 만족스러워야 한다(Triandis, 1977). 이는 조작적 조건형성을 통한 학습과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두 번째의 변수는 운명 서비스 제공자나 도구의 예측 정확도 지각이다. 얼굴만 보거나 연월일시(사주)만으로 그 개인의 과거나 미래를 맞추면 신기하다는 반응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결과로 인해 더욱 믿게 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넘(Barnum) 효과와 유사하다. 사람들은 성격 항목표보다는 투사검사를 통해 알게 된 자신의 성격을 더 정확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Snyder, 1974, 홍대식, 1985에서 재인용, p.499). 심리적 구성개념 파악과 마찬가지로 운명 서비스 제공 도구에 대한 신뢰도 그 절차와 관련한 신비스런 성격과 메시지의 보편성에 기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도출할 수 있는 설명 변수는 개인이 현재까지 살아온 인생 역정에서 성공이나 실패 경험이다. 살아온 인생에서 자신의 노력을 통한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것이고, 실패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노력을 초월한 어떤 힘이나 질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지하거나 작용

원리를 알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덧붙여 네 번째로 도출할 수 있는 변수는 자신감이다. 인간의 행동은 동기와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무슨 일이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낮을 경우 운명 소비행동을 할 가능성은 높다. 면접 결과로 도출한 자신감은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란 개념과 유사하다. 자기 효능감은 Bandura(1977, 1989)가 사회 학습이론(또는 사회인지 이론)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그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기대를 제안했는데, 하나는 결과 기대(outcome expectation: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효능감 기대(efficacy expectation: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행동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대)이다. 그는 결과 기대보다는 효능감 기대가 인간의 과제 선택, 노력의 양, 어려운 장면에서의 인내력 등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과제와 관련한 많은 노력을 하고, 낮을수록 노력을 덜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변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거나 참지 못하는 개인의 경향성이다. 운명 소비 경험자들 중 상당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갑갑함과 답답함으로 인해 운명 소비행동을 하고 있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성취하려는 능동적 경향성 못지않게 실패를 회피하려는 소극적 동기(motive to avoid failure)를 가지고 있다(Atkinson, 1978, 한덕웅, 1987에서 재인용, p.284-300). 실패 회피 동기는 성취 행동을 막고, 실패를 초래할 행동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동기화된다. 실패 회피 동기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안감은 조급함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특정한 과제나 일 중심은 아니라 해도 한국인은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운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명소비행동에 대한 설명 변수는 상황이다. 피면접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과제에 부딪혔을 때,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역경을 겪었을 때 운명소비행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예비 연구에서 도출한 설명 변수들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경험 연구(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질문 문항 구성

운명관

선행 연구 결과(김철민, 2002)에 따라 개인의 운명에 대한 믿음인 운명관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인위적인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정명관)에 해당하는 20문항이었다. 두 번째는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인위적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역명관)으로 22문항이었고, 세 번째는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만들어 간다’는 믿음(조명관)으로 7문항이었다. 네 번째는 선행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전결정관에 해당하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선행 연구에서는 총 55문항이었지만 요인 부하량과 공통분산을 고려하여 2문항을 제외하였다).

운명 소비경험과 인생 성공 경험

예비 연구에서 도출한 설명 변수들로 과거에 운명 소비행동을 했던 경험과 인생사에서 이루

고자 했던 바를 이룬 경험을 각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예측 정확도

개인이 이용했던 운명 서비스 제공 도구들에 대한 정확도 지각을 3문항(사주/궁합, 점복, 관상/수상)으로 측정하였다.

자기 효능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Bandura, 1977, 1989; 손명자, 1984). 이러한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손명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제물 발표상황(16가지)을 가정하여 응답하게 하고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자기 효능감은 성격 특성과 달리 과제나 상황에 밀접하게 관련된 인지 개념이다. 그러나 Bandura(1977)는 자기 효능감에는 일반성의 차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의 개인차를 평정하는 도구 제작도 가능하다(현정환, 1993). 본 연구에서는 손명자의 연구(1984)를 참조하여 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기 효능감 측정 문항을 제작하였다.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할 자신이 있다’와 같이 일반적인 효능감에 대한 2문항,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소개를 하라고 하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와 같이 상황과 관련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미래 불확실성 회피(확실성 선호)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확실한 결과를 선호하는 경향성이다. 여기에는 미래의 결과를 빨리 알고 싶고, 결과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경향성도 포함된다. ‘결과가 불확실한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일을 좋아 한다’, ‘시험 결과는 빨리 알수록 좋다’ 등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G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400명이었다. 표본 추출 방법으로는 남/여, 미혼/기혼을 기준으로 각 100명씩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비확률적 표집이기에 표집의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표집 오차를 계산할 수는 없어도 대상자들이 G광역시의 각 구(5개 구)에서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할당하여 추출하였다. 즉 미혼인 경우는 주로 대학생들이었고 현 거주지를 고려하여 200명(각 구당 평균 40명)을 추출하였다. 기혼 남여에 대해서는 각 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편의 표집하여 할당 인원을 면접 조사하도록 하였다. 기혼 남여 대상 질문지 가운데 상당수가 불성실하게 응답(일부 무응답, 무작위 응답 등)하여 이들을 제외한 31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최종 분석한 응답자들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자들 중 운명 소비행동을 해본 경험

표 1. 성별/결혼 유무별 응답자

	남	여	전체
미혼	98(31.3%)	100(31.9%)	198(63.3%)
기혼	50(16.0%)	65(20.8%)	115(36.7%)
전체	148(47.3%)	165(52.7%)	313(100%)

표 2. 성별/결혼 유무별 운명 소비행동 경험

운명소비경험	남	여	미혼	기혼	전체
없음	52(35.1%)	41(24.8%)	55(27.8%)	38(33.0%)	93(29.7%)
있음	96(64.9%)	124(75.2%)	143(72.2%)	77(67.0%)	220(70.3%)
계	148(100%)	165(100%)	198(100%)	115(100%)	313(100%)

이 있는 사람은 70.3%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운명 소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기존의 조사 결과와 달리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운명 소비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최근(2004년 초) 20대 취업의 어려움, 그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일 것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운명 서비스 이용처럼 운명 서비스 제공 채널의 다양화의 영향도 있으리라 본다.

운명소비 장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역시/점복 전문인(40.3%), 인터넷 사이트(36.6%), 주변인(13%), 신문/잡지(7.4%), 700서비스(1.4%), 전문서적을 이용한 자가진단(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잡지를 통해(58.4%), 기혼은 전문인을 통해(59.5%) 운명소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운명관의 요인 구조

운명관의 요인구조가 안정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선행 연구(김철민, 2002)와 동일하게 하였다. 즉 주축 요인 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를 통하여 기초 요인분석을 하였고, 고유치와 각 문항별 설명분산(h²)에 근거하여 요인 수를 4개로 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의 해석을 위해 사각 회전(oblique rotation 중 direct oblimin)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구조는 선행 연구 결과(김철민, 2002)와 거의 비슷하다. 제 1요인은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인위적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인 역명관, 제 2요인은 운명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믿음인 조명관, 제 3요인은 유전결정관, 제 4요인은 운명은 정해져 있어 인위적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인 정명관이었다.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과 요인부하값을 살펴보면, 운명관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먼저 역명관은 정해진 운명을 전제로 하나 개인의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다. 역명관(요인 1)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정명관(요인 4)에도 상당히 높은 요인부하값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요인간 상관행렬을 살펴보아도 역명관과 정명관은 -.517의 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요인 해석을 위한 사각 회전의 당위성과 요인간 이론적 가정과 일치한다. 즉 역명관과 정명관은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그 운명을 인위적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느냐 단순히 수용 하느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역명관에서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인위적 노력이란 무엇인가? 해당 문항들을 살펴보면, 부적, 굶, 길일이나 명당을 잡는 것,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운명을 정하는 주재자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며, 운명 주재자를 대상으로 기복/피액 행동이다.

표 3. 운명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역명관	조명관	유전결정관	정명관	공통분산 (h ²)
부적을 갖고 다니면 행운이 온다.		.756				.616
부적은 행운을 만들어 낸다.		.745				.608
부적을 지니면 다가올 액운을 막을 수 있다.		.716				.543
나는 점괘를 믿는다.		.687			-.516	.516
내 한 해의 운세는 토정비결을 보면 알 수 있다.		.685			-.483	.499
곳을 하면 액운을 피할 수 있다.		.682			-.323	.486
사주를 보면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		.647			-.382	.422
한 해의 운세가 좋지 않으면 각별히 조심한다.		.616			-.544	.496
하루의 운세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 알 수 있다.		.603	-.356			.497
나는 관상을 믿는다.		.598			-.418	.397
어떤 대학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는 것은 운명이다.		.589	-.304		-.406	.428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578			-.434	.385
이사나 결혼은 자신에게 좋다는 날에 해야한다.		.575			-.529	.477
나는 사주팔자를 믿는다.		.571			-.553	.442
명당에 묘를 쓰면 그 자손이 잘 된다.		.565			-.487	.476
기구한 팔자는 어찌해도 바꿀 수 없다.		.550	-.461		-.369	.437
오늘의 운세가 안 좋으면 그날은 매사에 조심한다.		.537			-.462	.393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하고 못하고는 운명이다.		.520	-.354		-.478	.434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자식 복이 없기 때문이다.		.517	-.320		-.485	.407
내가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는 다 정해져 있다.		.510	-.476		-.367	.414
손금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506			-.362	.274
나쁜 꿈을 꾸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481			-.369	.264
아들이나 딸이냐는 하늘(삼신할매)이 정한다.		.479			-.332	.265
손이나 발을 떨면 복이 달아난다.		.467			-.346	.234
궁합이 안 좋은 사람과는 잘 살 수 없다.		.388			-.372	.301
오늘의 운세를 보면 하루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		.378			-.354	.204
자신의 앞날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696			.500
자신의 운명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627			.416

표 3. 계속

문 항	역명관	조명관	유전결정관	정명관	공통분산(h ²)
타고난 팔자도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		.612			.399
정해진 운명도 바뀔 수 있다.		.606			.383
남에게 좋은 일은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550			.388
궁합이 안 좋아도 서로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400	.537		.327	.438
노력해서 안되는 일은 없다.		.531			.350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은 다 팔자 때문이다.		-.440		-.349	.292
부모가 머리가 좋으면 자녀도 머리가 좋다.			.600		.381
부모의 키가 크면 자녀의 키도 크다.			.529		.294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479		.242
부모가 잘 생겼으면 잘 생긴 자녀를 낳는다.			.449		.213
자신의 복은 갖고 태어난다.	.422			-.724	.532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382			-.700	.529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 있다.	.354			-.689	.528
팔자에 맞는 직업이 있다.	.425			-.633	.441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운명이다.	.373	-.426		-.602	.498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다 팔자 소관이다.	.329	-.316		-.597	.405
좋은 날에 이사하면 액운을 막을 수 있다.	.519			-.572	.511
부자가 되려면 운은 타고나야 한다.	.433		.411	-.559	.482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인복)은 타고나는 것이다.	.327			-.555	.345
사람의 수명은 미리 정해져있다.	.424			-.497	.331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야 성공할 지 미리 정해져 있다.	.429	-.412		-.492	.380
사람의 운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분명하게 정해져있다.	.369			-.491	.265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316	-.350	.409	-.477	.427
천생연분은 있다.		.300		-.477	.406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다.		-.347		-.439	.282
고유치	13.73	3.52	2.42	1.90	21.57
설명 분산(%)	25.91	6.64	4.57	3.58	40.70

이와 반대로 조명관은 운명은 만들어 간다는 신념이다. 이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정해진 운명보다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운명 개척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타고난 팔자나 운명, 궁합도 인위적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문항들의 요인부하값도 높다. 이를 참조한다면 한국인에게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믿음에는 타고난 운명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정해진 운명 자체를 무시하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인과응보와 유사하다. 역명관에서 인위적 노력이 피동적 노력이라면 조명관에서 능동적인 노력을 뜻한다.

표 3을 참조하면 제 3요인으로 유전결정관이 도출되었다. 유전결정관과 정명관은 모두 결정론적 사고를 반영한다. 차이가 있다면 유전결정관은 당위적, 필연적 결정론이고 정명관은 개연적 결정론이라 하겠다.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인의 운명관은

상호 복합적인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인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기타 다른 변인들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 운명관 이외에 복수 문항으로 측정된 변인은 예측정확도(3문항: 사주, 점, 관상/손금의 정확성), 자기효능감(5문항) 및 미래 불확실성(5문항)이었으며, 이것들 각각의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축 요인 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를 통하여 기초 요인분석을 하였고, 각 요인의 해석을 위해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예측정확도, 자기 효능감 및 미래 불확실성 회피는 각각 단일 요인으로 산출되었다.

세 변인 각각의 신뢰도 계수와 문항-총점 상관의 범위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예측정확도는 $\alpha=.79$ 와 $r=.55\sim.68$ 이었으며, 자기 효

표 4.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기초통계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소비경험	2.000	.813	-									
2. 예측정확	2.195	.546	.108	.79								
3. 인생 성패경험	2.540	.610	-.056	.084	-							
4. 자기효능감	2.802	.431	-.096	.039	-.114	.73						
5. 확실성선호	2.941	.371	.092	.084	.164**	.255***	.60					
6. 역명관	2.038	.379	.343**	.392**	.039	-.190**	.010	.9235				
7. 조명관	3.000	.333	-.030	-.059	-.001	.328***	.244***	-.260***	.7607			
8. 정명관	2.269	.405	.273***	.281***	.076	-.167**	.071	.753***	-.262***	.8750		
9. 유전결정관	2.461	.446	-.128*	.095	-.069	.046	.046	.033	-.021	.119*	.5095	
10. 운명소비의도	1.490	.532	.415***	.180**	.065	-.080	.099	.531***	-.147**	.414***	-.142*	-

주. * $p < .05$, ** $p < .01$, *** $p < .001$ 에서 유의미. 대각선의 수치는 α 계수임

능감은 $\alpha=.73$ 와 $r=.39\sim.54$ 이었다. 한편, 미래 불확실성 회피는 9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요인분석, 문항-총점 상관분석, 내적 합치도 분석결과, 4문항을 제외한 최종 5문항의 $\alpha=.60$ 와 $r=.28\sim.43$ 이 산출되었다. 이후의 분석을 위해 각 변수별 평균 점수를 최종 변수로 삼았다.

운명 소비행동의 설명 변수 탐색

운명소비행동의 설명 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2단계 절차를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경로분석이 수행되었다. 즉, 기초모형(base model)의 가설적 관계를 경로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설정된 수정모형(modified model)을 다시 경로분석하여 운명 소비행동의 설명 변수를 탐색하였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경로분석된 기초모형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외생

변수(이용경험, 예측정확도, 성공/실패 경험, 자기효능감 및 확실선호)는 운명관의 네 요인 모두의 예측변수가 되었으며, 운명관의 네 요인은 운명 소비행동의 예측변수가 되었다. 이와 같은 변인간 가설 관계를 가진 기초모형을 AMOS 4.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하여 유의하지 않은 경로($p < .05$)는 제거하고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ex)를 참조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경로를 추가한 수정 모형을 다시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으며, 수정모형에 포함된 변인간 관계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수정 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hi^2=150.671$, $df=24$, $GFI=.886$, $AGFI=.740$, $RMR=.015$ 가 산출되었다. 기초모형에서는 $\chi^2=141.501$, $df=11$, $GFI=.892$, $AGFI=.461$, $RMR=.014$ 가 산출되었다. 결국, 기초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제거되고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한 경로가 추가

표 5. 운명소비행동의 수정모형 검증 결과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t 값)	R^2
운명 소비경험	→ 역명관	.300(5.013)	.270
예측정확도	→ 역명관	.350(2.954)	
인생의 성패 경험	→ 역명관	.175(5.868)	
자기효능감	→ 조명관	.283(4.236)	.112
확실선호	→ 조명관	.127(1.908) [‡]	
운명 소비경험	→ 정명관	.200(3.153)	.179
예측정확도	→ 정명관	.280(4.416)	
인생의 성패 경험	→ 정명관	.216(3.430)	
역명관	→ 운명소비의도	.461(7.575)	.314
유전결정관	→ 운명소비의도	-.116(-2.018)	
운명 소비경험	→ 운명소비의도 [*]	.181(2.971)	

‡ 는 $p<.10$ 에서 유의미, 나머지 경로계수와 R^2 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

*는 수정모형에서 추가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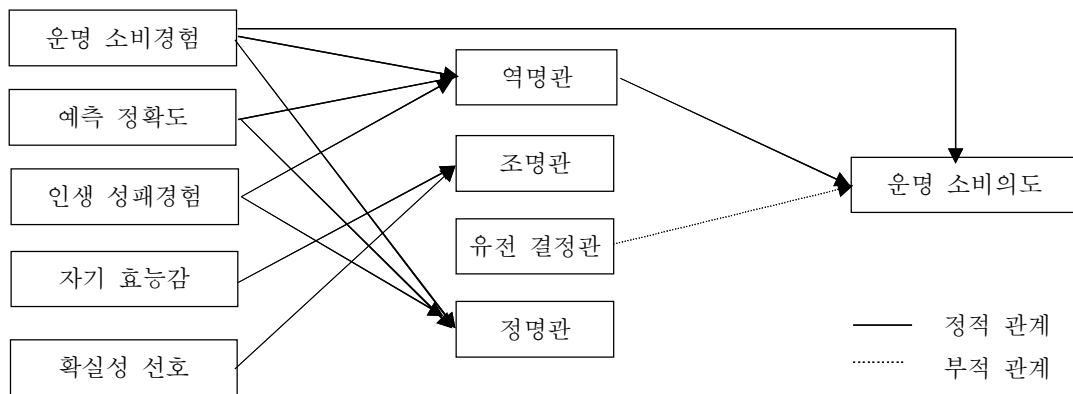


그림 1. 운명소비행동의 수정모형

된 수정모형은 기초모형에 비해 현상에 부합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의미한 각 경로를 살펴보면, 각각의 운명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명관과 정명관에 대한 선행변수의 유형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명 소비경험, 예측정확도 및 인생에서의 성공/실패 경험이 주요 선행변수였다. 그러나,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역명관과 정명관에 대한 상대적 영향은 각기 차이가 있는데, 역명관에 대해서는 예측정확도>운명 소비경험>성공/실패 경험의 순서였지만, 정명관에 대해서는 예측정확도>성공/실패 경험>운명 소비경험의 순서였다.

조명관에 대해서는 자기효능감과 확실선호가 주요 선행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운명관의 한 요인인 유전결정관에 대해서는 어떤 선행변수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운명소비의도에 대해서는 운명관 중 역명관과 유전관이 중요 선행변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애초의 기초모형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운명 소비경험→운명소비의도’의 직접 경로를 알 수 있었다.

논 의

운명관의 구조는 선행 연구결과(김철민, 2002)와 동일하게 역명관, 조명관, 유전결정관, 정명관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뉘었다. 연구 시점과 표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운명관의 요인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유전결정관은 여전히 다른 요인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독자적인 요인을 이루었다. 자신의 운명(지적능력, 외모)이 유전이라는 생물학적 소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념은 분명 결정론적 관점이며 정명관과 유사하다. 또 개인의 노력(학습, 영양섭취, 성형수술 등)에 의해 변화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명관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결정관은 정명관이나 역명관과 구별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전결정관

을 구성하는 하위 문항들간 내적 일관성은 낮았다.

운명관은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하나는 합리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소인(신, 초합리적 법칙)에 의해 결정되고(정명관), 그에 의존하여 변화가능하다는 신념(역명관)이다. 또 하나는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소인(유전)에 의해 결정되지만 변화 가능하다는 신념(유전결정관)이다. 마지막은 정해진 것은 없고 개인의 노력으로 미래가 만들어 진다는 신념(조명관)이다.

운명소비행동(의도)의 선행요인: 개인의 운명소비행동은 운명관과 과거에 역학이나 점복을 이용한 경험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었다. 즉 운명은 초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변화 가능하다고 믿을수록 운명소비행동을 하고, 운명이 유전적 소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지 않을수록 운명소비행동을 할 가능성은 높다.

한편 어떠한 운명관을 갖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과거 운명소비경험이 많을수록 앞으로 운명소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경로계수의 절대값을 바탕으로 운명소비의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역명관>운명 소비경험>유전결정관의 순서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과거의 운명 소비경험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도구적 조건화의 원리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마치 어떤 제품을 단순히 사용해 본 경험이 이후의 구매 및 소비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단순 소유 효과(mere possession effect)(Sen & Johnson, 1997)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운명관의 선행요인: 네 가지 운명관은 서로 다른 선행변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우선, 역명관과 정명관의 선행변인은 동일하였는데, 과거 운명 서비스 소비경험, 운명 서비스의 예측 정확도 및 소비자 자신의 인생 성공/실패 경험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약간 달랐다. 표준화된 경로계수의 크기를 살펴보았을 때, 역명관에 대해서는 예측정확도>운명 소비경험>인생의 성공/실패 경험의 순서였다. 반면, 정명관에 대해서는 예측정확도>인생의 성공/실패 경험>운명 소비경험의 순서였다.

둘째, 조명관에 대해서는 자기효능감과 확실성 정도라는 개인차변수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운명관에 비해 조명관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변인이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만 하다.

결국 경로 분석 결과와 예비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개인의 운명소비행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최초에 호기심이나 재미, 우연한 계기로 운명소비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운명소비행동 경험은 곧바로 또 다른 운명소비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처음의 운명소비행동 과정에서 운명서비스 제공자나 도구의 예측의 정확성을 경험하고, 인생역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역명관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 운명소비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인으로서 한국인의 운명소비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 결과의 해석이나 결론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집단심층 면접 결과에 바탕하여 추출한 운명소비행동의 선행변수들에 대한 문항 제작과 관련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확실성 선호(불확실 회피)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구성개념의 의미에 부합하는 문항들을 좀 더 많이 만든 다음 최종 문항들을 추출했어야 했다. 이러한 문항 제작과정에서 정밀함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불만족스런 내적 합치도 지수로 나타났다.

둘째는 경로분석과 관련한 문제이다. 본 연구가 횡단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과적으로 외생/내생변수들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한 후 종단적 연구 결과처럼 해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선행 변수들 가운데 운명소비경험, 예측정확도, 인생 성패경험, 자기 효능감, 확실성 선호(불확실 회피)를 외생변수로, 네 가지 운명관을 내생변수로 설정했다. 이 때 설정 기준은 각 변수 자체의 개인내 정립 시기나 변수간 시간적 인과성이었다. 그런데 특정 시점에서 각 변수들을 측정하고 변수간 인과관계를 설정할 때(횡단적 연구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심리적 구성개념인 각 변수의 안정성(변화가가능성), 중심성(일반성/보편성/포괄성, 특수성/개별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특히 운명관, 자기 효능감, 확실성 선호경향의 인과관계에 대한 모형 설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다분히 탐색적이며 잠정적 결론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표본의 지역적 편파성으로 인해 본 연구 결과를 한국인의 운명소비행동에 일반화할 때 한계가 있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심리학 영역뿐 아니라 심리학 전반에서도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행동으로 취급해온

운명소비 행동을 경험적이며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도 역경에 봉착하거나 능동적인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괴로움 속에서 아무런 행동 없이 지내는 것과 합리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막연한 믿음에 근거하여 운명 소비행동을 하고 이를 통해 위안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 심리학에서 消費(consumption)란 단순히 유형/무형의 제품과 서비스를 써 없애는 것이 아니다. Holbrook(1987)은 개인의 마음속에서 솟아 오르는 심리적 에너지를 소비를 통해 평형상태로 돌리는 것(consummation)을 소비로 개념화하고 있다. 운명 소비행동을 단순히 비과학적, 미신적 행동으로 보고 좌시하여 학문적 탐구 대상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소비자로서 인간의 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이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리라 본다. 더욱이 운명소비행동과 운명관, 그리고 선행변수들은 운명소비행동뿐 아니라 각종 보장성 보험이나 미래를 담보하는 연금, 저축 행동 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한편 운명소비행동을 하는 소비자의 운명 서비스 제공 도구에 대한 막연한 믿음은 소비자 심리학 영역에서 개인차 변수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운명 서비스 제공 도구(사주, 관상 등)는 초합리성과 초논리성을 안고 있긴 하지만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종의 측정도구이다. 심리학에서 이용하고 있는 각종 개인차 측정 도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 개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개인차 변수들을 측정하는 방법들은 얼마나 복잡한가. 제작이나 검사 방법의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도구들의 예측 타당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수많은 측면들에 답을 제시하는 것과 얼굴이나 연월일시만을 제시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간명하고 절약적일 것인가? 특히 현업에서 소비자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려 하는 실무자들은 간명한 개인차 측정도구를 원한다. 소비자 심리학 분야에서 활용할 개인차 변수의 제작과 측정 방법에 대해 재고(단일문항 측정과 다문항 측정, 상관지수와 설명분산의 최대값, 언어 위주의 문항 구성 등)에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정환 (1998). 사주 점복의 카오스적 설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발표 석사학위 논문.
- 김경동 (1994). 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 김석진 (1995). 미래를 여는 주역, 서울: 대우학당.
- 김용정 (1992). 라이프니츠의 보편기호법사상과 역의 논리, 한국 주역학회 편, 주역의 현대적 조명, 서울: 범양사.
- 김철민 (1996). 한국인의 가치관과 소비행동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발표 박사학위 논문.
- 김철민 (2002). 운명 소비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운명관의 내용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3(2), 75-89.
- 김태근 외 (1995). 한국의 점복, 서울: 민속원.
- 김홍철 (1995). 한국 점복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 종교사 연구, 3집, 202-222, 한국 종교사학회.
- 박재주 (2001). 주역의 생성 논리와 과정 철학, 서울: 청계.
- 서영대 (1994). 한국 점복의 연구, 한국 민속 연구사, 서울: 지식산업사.
- 손명자 (1984). 정서적 심상화의 기제와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발표 박사학위 논문.
- 신상춘 (1991). 사주가 운명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과의 관계: 사주를 통한 다면적 인성 진단을 위한 예비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미발표 석사학위 논문.
- 양문승 (2003). 동양철학적 접근을 통한 범죄원인론 구성 및 교정처우 가능성의 예비적 연구,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15, 47-72.
- 오수성 (1995). 한국 무속의 심리학적 접근, 동양사상과 심리학(임능빈 편집), 583-594, 서울: 성원사.
- Win (1997). 무속의 사회학, 1997년 7월호, 중앙일보사.
- 이기동 (1997).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은봉 (1992). 주역의 동시성 원리와 이상, 한국주역학회편, 주역의 현대적 조명, 서울: 범양사.
- 이정복 (1996). 역의 논리 서설: Husserl의 현상에서 주역의 지평으로, 주역연구, 10, 63-86.
- 정재민 (1998). 한국 운명설화에 나타난 운명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발표 박사학위 논문.
- 중앙일보 (2002). 8월 3일 12면.
- 최길성 (1990). 점복과 예조, 서울 육백년사: 민속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 한국동양철학회 (1996).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 연세대학교.
- 한덕웅 (1987). 조직 행동의 동기이론. 서울: 법문사.
- 현정환 (1993).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동향과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12(1), 81-97.
- 홍대식 역 (1985). 심리학 개론. 서울: 박영사.

- Ajzen, I. (1987), Attitudes, traits, and actions: Dispositional prediction of behavior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0, 1-63.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9), Perceived self-efficacy in the exercise of personal agency.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10, 411-424.
- Carlson, N. R. (1986), *Physiology of Behavior(3th ed.)*, Allyn and Bacon, Inc.
- Holbrook, M. B. (1987), What is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128-132.
- Sen, S. & Johnson, E. J. (1997). Mere-Possession Effects without Possession in Consumer Cho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4(June), 105-117.
- Triandis, H. C. (1977), *Interpersonal behavior*. Monterey: Brooks/Cole.

K C I

Antecedents of Fate Consumption Behavior

Gim, Cheol-Min

**Assistant Prof., Dept. of Mass Communication &
Advertising, Gwangju Univ.**

Lee, Seong-soo

**Director, Brand Design Institute,
Hakuhodo Cheil, Inc.**

The purpose of the paper was exploration of reasons as to why people wish to know their own future(in this paper we named fate consumption behavior). For achievement of this purpose, we set two sub-research questions and found answers. First, we assumed that fate consumption behavior is determined by how to think their own orientation of fate. Based on this assumption, we explored conceptual structure of orientation of fate and stability of structure of that, which is determinants of fate consumption behavior. Results is fate's orientation have four sub-factors of fatalism, belief to change fate, belief to create fate and hereditary fatalism. Second, we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established into antecedents on fortune-consumption behavior. Results is that belief to change fate and hereditary fatalism are main determinants of fate consumption behavioral intention. Belief to change fate and fatalism were influenced by the same predictors, which were past experience, accuracy of prediction, experience on success/failure in life. Belief to create fate is influenced by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 of self-efficacy and certainty preference. But hereditary fatalism is not influenced by even any other antecedents. Finally, we discussed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keywords : fate's orientation, fate consumption behavior